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낯말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낯말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낯말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낯말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낯에 하는 말.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미상	현재
낯말	☒	☐	☐
낯말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낯에 하는 말.

🕒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 수록 용례

6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낯말'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낯에 하는 말.



낯말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낯말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낯말 사전 표기 요약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
낯말 사전 표기 요약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낯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낯말
20세기미상
- 낯말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낯말, 낯말



낫말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낫말’의 옛말인 ‘낫말’은 19세기로 추정되는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낫말’은 ‘낫’을 소리대로 표기한 ‘낫’과 ‘말’이 결합한 것이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이후에 원형을 밝혀 적은 ‘낫말’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낫말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낫말, 낫말 용례 5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낫말, 낫말

📖 출처 1912 재봉춘 1:96

용례 01

66 문헌 용례

나는 입이 씨져져도 말후지 안킷지마는 낫말은 시가 듯고 밤말은 쥐가 듯는다고.

📖 현대어 풀이

나는 입이 찢어져도 말하지 않겠지만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출처 1914 추천명월 2

용례 02

66 문헌 용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하며 다시 창문을 닫치고 시름업시 흐르는 눈물을
압치마 자락으로 씨스며.

㉮ 현대어 풀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하며 다시 창문을 닫고 시름없이 흐르는 눈물을 앞치마 자락으로 씻으며.

출처 1924 동아일보 3월 30일 3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그러나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 소문이 원 동네에 아니 퍼질 리가 업섯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4 동아일보 4월 1일 조간 5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그래도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구….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5 동아일보 10월 8일 석간 5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그러키에 옛말에도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지요.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상 낮말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낮말

66 문헌 용례

속언의 일너스되 낮말은 시가 듯고 밤말은 쥐가 듯는다 ㅎ여소오니 이렇듯 힐난ㅎ오미 더욱 큰 화를 빨리 취ㅎ미라.

역 현대어 풀이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에 일렀으되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하였으니 이렇듯 힐난함이 더욱 큰 화를 빨리 취함이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낮말 관련 낱말



- [밤말명사밤에 하는 말.관련된 말의 뜻기초사전에서 읽기](#) ↗

뜻풀이: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낮말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낱말의 뜻과 역사](#)